

41 대·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(중기청)

□ 과제목표

-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, 인력양성 등 청년·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
-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

□ 주요내용

- (기업·근로자 부담 완화) '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,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
 -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,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
- (우수 기술인력 유치)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'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
 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&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'영마이스터 육성 과정'을 신설·운영
- (대·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) '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·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
 - 확산 캠페인,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'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

□ 기대효과

- '16년 2.8%(26만명)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'22년 2.3%(21만명)까지 완화
-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